공동체 소식

5월 성모님의 달

계절의 여왕 5월! 사랑의 달! 가정의 달! 성모님의 달입니다.
캔사스 한인 성당 가족 모두 사랑 안에서 행복한 5월을 기원합니다

【실천사항】
1. 매일 묵주기도 바치기
2. 일주일에 한번이상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3. 일주일에 한번이상 평일미사에 참례하기

▣ 5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녜스)**가정
-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이원준(요한) 가정

▣ 오늘은 "부활 제5주일" 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가지이니 당신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당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나무이신 하느님과 함께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입니다. 만약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하느님을 떠나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말라버려 무용지물이 되어 불에 태워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 리 신앙인 중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잠시 동안은 편하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조금 편히 살고자 하느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하느님과 생활함으로써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다음주일은 "Mother's day" 입니다.

다음주일(13일) "Mother's day"를 맞이하여 남성교우들이 애찬을 준비합니다. 여성교우님들께서는 남성 교우님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사단 입단식

복사단 입단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룩한 하느님 제단에서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사단에 입단하는 아이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 일 시 : 5월 6일(주일) 중심미사 때
- 장 소 : 성당

▣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 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8시) 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 바자회 관련공지

- 5월 19일(토) : 가라지세일 및 음식 판매
- 5월 20일(주일) : Silent auction

* 도네이션 해주실 물건들은 5월 6일(주일) 미사 후, 5월 13일(주일) 미사 후, 5월 18일(금) 행사 전일 저녁 7시에 성당지하로 가져다주십시오. 세일전날인 18일(금) 저녁 7시부터 분류 및 태깅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분과원 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식 준비하겠습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마 침
35	210	182, 174	244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05/06)	김주연(세실리아)	홍순익(마르띠노)
	김명은(안 젤 라)	최은미(아 녜 스)
다음주일 (05/13)	김명은(안 젤 라)	류기범(요 셉)
	김수연(율리안나)	신혜경(마 리 아)

▣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05/06)	**지은경 리브가**,이대숙 사비나, 박정옥 수산나
다음주일(05/13)	남성교우

▣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다음주일	최은미(아 녜 스)	문석찬(요 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29일>
- 미사참례 : 91명
- 주일헌금 : $415
- 교 무 금 : $1020

<5월 4일> - 성모님의 밤
- 미사참례 : 49명
- 헌금 : $232

부활 제5주일 |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전례에 적극 참여한다" | 2012년 5월 6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평 일 :수 목 금 10:00 AM
화 8:00 P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5주일이며 생명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굳은 믿음을 청하며 오늘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화해설

감곡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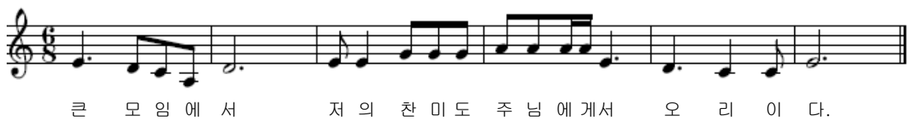
청주교구,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소재.

부엉골 본당에 부임한 부이용 신부는 본당 위치가 적당치 않자 현 성당 부지를 매입하여 1896년 본당을 이전하고 장호원 본당이라 명명했다. 1904년 한옥과 양옥의 절충식 성당을 완공하고, 1914년부터 매년 성체거동을 거행하고 있으며, 1930년 현재의 고딕 성당을 신축하였다. 충청북도 최초의 본당인 감곡 성당 제대에는 전쟁 때 인민군에게 7발의 총탄을 맞고도 부서지지 않은 '매괴 성모상'이 있다. 청주교구는 2006년 감곡 성당을 '매괴 성모 순례지'로 선포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 서 : 사도 9,26-31 < 바르나바는 어떻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는지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

화 답 송 :



○ 주님을 경외하는자 앞에서 저의 서원을 채우리다. 가난한 이들 배부르게 먹으리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당신을 기리며 너희 마음 길이 살아라 말하리이다. ◎

○ 땅이란 땅끝마다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백성 온갖 족속이 당신께 절하오리다.
땅속에 잠든 이들이 홀로 주님을 흠숭하오리다.
흙속으로 가는 자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굽히오리다.◎

○ 주님을 위하여 제 영혼은 살고 저의 후예는 당신을 섬기며
미래의 세대에게 두님을 들어 말하오리다.
주님께서 이같이 하셨다 이르며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를 전하오리다. ◎

제 2 독 서 : 1요한 3,18-24 < 믿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복 음 : 요한 15,1-8 <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

말씀의 이삭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한국에 있을 때 우연히 라디오를 통해 약간은 뼈가 있는 우스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남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팍팍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 지낸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참으로 끔찍한 일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제목은 **‘이런 남편 정말 싫다 No.3’** 입니다.

No. 3 : 평생 출장 한번 안가는 남편.
No. 2 : 출장가기로 했었는데,
현지 사정으로 출장이 취소되었다고 퇴근한 남편.
No. 1 : 출장을 떠나긴 떠났었는데,
미리 연락도 없이 예정보다 사흘이나 먼저 돌아온 남편.

한 중년 부인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 때를 넘겨서 들어오면 “밥 먹었어요?”하고 물으면서도 열 번에 한번 꼴로는 “먹고 왔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중년 남편은 자신의 서운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근 후에 술한잔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니 식구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도 기다리는 법인데 남편은 서운했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침 먹을 때까지 기다리라더니 마지못해 찬밥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밥 먹겠다고 나타나니까 갑자기 계란까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평생 부부로 산다는 것은 한 평생 같이 붙어있다는 것이고, 한 평생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진정한 부부란 끝까지 함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못나 보이더라도 끝까지 견뎌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70세는 족히 되어 보이는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산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존경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그런 모습이 가능했을까’ 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그냥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끝없는 인내와 포기, 지속적인 자기희생과 양보, 상대방을 이해해보겠다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지금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부가 끝까지 붙어있고,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한 방법에는 왕도(王道)가 없습니다. 오직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 아무리 화가 나도 막가는 식으로 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 바로 그 것입니다. 가정의 달, 성모님의 달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반려자와 가족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대하였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적인 일이나 여러 핑계를 들어 하느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 랍니다. **“뛰는 사람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위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붙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함께 나누어요

사랑하는 방법

한 소년이 밤새 진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는 말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동동거렸습니다.
마침 집에는 어른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말은 나아지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말은 이미 기운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년에게서 말의 상태를 들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인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가를 몰랐단 말이냐?’
소년은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사랑하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말문을 열지 않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란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히려 내 사랑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깊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교회역사를 집필한 에우세비우스는 이냐시오가 이교인 출신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베드로사도의 두 번째 후계자로서 시리아에 자리한 안티오키아의 주교였다고 전한다. 비잔틴 동방교회의 성인전에는 이냐시오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어린이(마태 18,2)였다고 하며, 예로니모성인은 그를 사도 요한의 제자로 여겼다. 이냐시오주교는 트라야누스 황제때에 안티오키아에서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갔고, 거기에서 서기 107년경에 많은 증언들이 알려주는 대로 원형극장에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순교로 목숨을 바친 성인이시며 교회는 그의 축일을 10월 17일에 지낸다.

이냐시오 주교는 잡혀가는 길에서 7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에는 혼인성사, 성체성사, 그리스도의 강생육화, 교회일치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대교회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으로 꼽힌다. 먼저 주님강생에 대한 가현설(예수님은 겉으로 보이기만 하는 사람모습을 가졌을 뿐이지참 인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을 반박하면서 이냐시오주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강생) 우리 인간의 몸을 진정으로 갖추시고 인성을 지니신 분이며(육화) 동시에 참

하느님이신 분을 믿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참된 신앙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교회일치에 대하여는 하나이요 동시에 세 위격이신 하느님의 일치(삼위일체)와,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위격의 일치와, 그리스도인과 영성생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 서로간의 일치를 자세히 가르치신다. 각 교회의 일치는 주교님을 통하여 드러난다. 지역교회의 중심은 주교님이시고 모든 지체는 주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주님과의 일치가 가능해진다. 안티오키아교회에서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라는 용어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냐시오 주교는 자신의 순교영성을 성체성사의 신비에 연결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원로주교로서 여러지역의 교회들로부터 큰 존경과 사랑을 받던 이냐시오주교가 로마로 압송되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자들은 그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작별인사를 하려고 교회단위로 모였다가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인사를 드렸고 애통해 하였다. 그리고 로마의 신자들 중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신자들이 이냐시오주교를 위하여 구명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냐시오 주교는 간절히 구명운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순교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놔두라고 하소연하였다.

그의 깊은 순교영성을 볼 수 있다. “저는 모든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방해하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저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제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밀이삭이니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저의 몸을 볼 수 없게 될 때 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가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그리스도께 간구해 주십시오”(이냐시오주교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4). 참고로 분도출판사에서 2000년에 펴낸 [교부문헌총서 13권]을 보면 이냐시오주교의 7통 편지를 한국어로 읽을 수 있다.

순교를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위한 “출산”이라고 말한 이냐시오 주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듯이, 순교의 수난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된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순교일을 애타게 기다렸다. 교회는 이 같은 믿음에 따라 순교자들의 순교일을 “천상탄일”이라 부르고, 그들의 축일로 지낸다.

- 장인산 베르나르도 신부(청주교구)